

禪 용어 총망라 첫 '선학사전' 출간

선불교의 각종 용어를 풀이한 우리나라 최초의 선불교 전문사전인 <선학사전>이 나온다.

9월 중순 불자에서 펴낸 <선학사전>에는 각종 선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경구 성구 속어를 중심으로 5천1백여 항목에 대한 풀이와 인용예문 출판을 위한 해답분야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결과물임과 동시에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중요성을 지닌다. 이러한 의미

에서 늦기했지만 <선학사전>의 편찬은 한국불교의 패거리 불려도 무색하지 않다.

기존의 불교사전이 일본의 사전에 그대로 수용해 우리글로 옮긴 것에 그쳤다면, <선학

사전>에서는 한국선종과 관련된 용어와 인물 선사 사찰 등을 표제어로 발굴해 우리의 선종사전으로 만들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9천1백여 항목 풀이·출전·예문 낱낱이 수록 선종사 연표등 부록도... 8년여만에 마무리

이때따라 선종문헌을 읽기 위한 어문학적 보조공구사전(補助工辭典)의 기능을 해낼 것으로 기대돼 선학은 물론 불교학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주인 소항목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항목마다 출전과 예문을 일일이 소개해 표제어의 폭넓은 이해를 돕고자 했음도 장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선종사연표 선종법계도 선사목교학 발전에도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자대표 김형근씨는 "지난 87년부터 시작된 '선학고경총서'의 편집을 맡으면서 선종의 어휘와 인물 역사에 대해

'선학사전'은 단편적인 용어 풀이 위주인 소항목 중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제어마다 일일이 출전을 밝히고 예문을 실었다.

이철교사과과장과 수국사의 일지스님, 신규탁교수(연세대 철학과)가 참여, 광범위한 선종문헌을 열람해 해설과 예문을 정리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선사 선사 용어 사찰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해 선종사연표 선종법계도 등 부록을 집필, 8년여만에 마무리되었다.

감수를 맡은 월운스님(동국대 영경원장)은 "낱말의 선정

주 불교학계(佛敎學界)에 있어서는 선종(禪宗)의 용어(用語)에 대한 연구(研究)가 매우 부족(不足)한 실정(實情)이다. 선종(禪宗)의 용어(用語)는 선종(禪宗)의 사상(思想)과 실천(實踐)을 이해(理解)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重要)한 역할을(役割)을 담당(擔當)하고 있다. 선종(禪宗)의 용어(用語)는 선종(禪宗)의 사상(思想)과 실천(實踐)을 이해(理解)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重要)한 역할을(役割)을 담당(擔當)하고 있다. 선종(禪宗)의 용어(用語)는 선종(禪宗)의 사상(思想)과 실천(實踐)을 이해(理解)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重要)한 역할을(役割)을 담당(擔當)하고 있다.

명사추천

불서 100선

관무량수경

사람은 이승을 뜨면 저승으로 간다. 그러나 불교도는 극락정토로 가기를 진정으로 염원한다. 극락이란 지극히 인락하여 걱정이 없는 나라라고 한다.

회화로서 하나하나의 의미가 새겨질 때마다 넋을 잃고 바라보게 될 뿐이다.

지금 수중에 있는 '敦煌石室寫經圖記(동황석실사경계기)'와 '敦煌雜錄(동황잡록)' 중에서 '아미타경 변문'의 일부를 인용한다. 化生童子食大餅 百味齋香 無限天人持寶器 琉璃針似似真珠 極樂國中無量夜 花開花合 猶如朝露 이를 변문조(불경을 알기

이에 이 극락정토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인가, 그것이 그동안 또 하나의 나의 과제이다. 觀無量壽經(관무량수경)은 극락세계의 실체를 16관법으로써 사실적으로 펼쳐 보여준다.

석존 때 마갈타국 왕사상에서 아사세 태자가 부왕 빈바사라를 거두고 모후 위제희부인을 죽이려한 데서 발단한다. 이에 부인은 산중의 부처님께 멀리서 예배하며 교화해 주기를 빌었다.

부처님이 신통으로 이를 알고 제자를 보내며 몸소 나아가 시방정토를 나타내 보였다고 한다. 부처님께서 부인이 극락세계를 선택함을 보시고 16관법으로 나누어 아미타불과

정성은 기자

장백일 (문학평론가·국민대 교수)



16관법통해 극락세계 실체 보여 "참다운 극락정토 깨달음 그 자체"

정토의 모양을 말씀하셨다. 마침내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 경을 유통하라고 위촉하셨다.

쉽게하는 해설)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얼마전 모출판사의 요청으로 이 경의 번역을 끝냈다. 그러나 敦煌(동황) 막고굴에 그려진 觀無量壽經(관무량수경)의 아름다운 벽화가 보고 싶어졌다. 벽화의 기본테마는 變相圖(변상도)이다. 천 수백년에 걸쳐 경전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그림과 塑像(소상)으로 나타내며 변상도요, 막고굴은 그것의 역사적 대외랑이다. 현재 정리된 있는 글은 492개로 벽화는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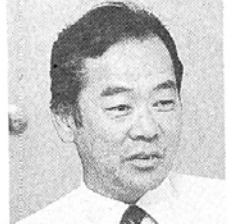
한마디로 극락 극치를 말한다. 깊은 막고굴에서 '관무량수경'의 벽화에 젖으면 내가 바로 극락정토에 태어났음이 아닌가. 부처님은 간절히 열원하면 정토에 태어나도록 들어주신다.

주제별로 보면 총수 1천45쪽 중 가장 많은 것이 '극락정토변'으로서 228을 헤아린다. 당나라 때 성행한 것들로 소상과 벽화는 정말 이름 많다. 이중 '관무량수경'은 172글과 217글에 펼쳐진

그럼에 깨달음을 보는 자가 참다운 극락을 본다.

의사가 쓴 네팔 구도여행기 "인간심성 원형 탐색"

이근후교수 '신은 우리들의 입맞춤에도...' 펴내



이근후 교수

사의 눈으로 히말라야 문화의 아름다운 심층을 보여준다. 가네스신의 오디피우스 콤플렉스, 창조와 파괴,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시바에 대한 이야기 등을 통해 인간의 삶과 심리에 대한 생각들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이 책은 독특한 문화를 낯선 눈으로 들여다보는 즐거움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지금의 나는 원래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고 생각해 만드는 곳" 즉, 인간심성의 원형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이끌림을 표현한 구도여행기로 읽힌다.

한편 이교수는 정신과전문의로 환자를 치료하면서 한국 석불문화연구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우리나라 불상과 사원건축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12월에는 <한국의 석불> 출간과 함께 석불사건전도 준비하고 있다.

새로 나온 책.....

▲한국고대사의 숨은 이야기 (박승제 지음)=월명 총담 해공 원효 등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주요인물들의 삶과 사상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인물사. '나라를 세운 이야기' '사람사는 이야기' 등 6부로 구성됐다. <우리교과, 6천원>

▲배움(임현담 지음)= '히말라야·인도에 빠진 닥터'의 지은이가 쓴 구도예사이. 30편의 글마다 '...에게서 배운다'라는 부제를 붙였듯, 질병과 폭력과 어둠 등 유정 무정물이 모두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동반자라고 밝힌다. <효형출판사, 5천8백원>

▲다섯 류영모의 불교사상 (박영호 지음)=반야심경을 통해 생명의 진정한 의미와 니르바나(열반)의 실체에 대한 생각과 믿음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풀어냈다. 다석의 어록을 중심으로 그의 제자인 박영호 씨가 다석의 불교사상을 정리했다. <문화일보사, 6천원>

▲불교와 기독교(히로 사찌야 지음)=극락과 천국, 승려와 신부·목사, 자비와 사랑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등 50개의 문답을 통해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 두 종교간의 이해를 돕고 있다. 조영권 옮김, <생활문화, 5천5백원>

▲초월의 길 해탈의 길(스아미지 지음)=히말라야 요가학회에서 강연한 스아미지의 요가수행 지침서. 각자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방법론에서 탈피해 각자의 개성을 스스로 자각한 후에 영성개발을 위한 수행을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태영 옮김, <여래, 5천8백원>

▲첫맛 따는 손길(양은순 외 지음)=미래세 동인들의 제17사화집. 이번 시집에는 부산 금어회에서 정진중인 양은순(부산 문인협회 이사)씨의 '꼭우치' '세작'을 비롯하여 나영자, 김몽선, 이상인씨 등 36명시인들의 170편의 시가 선보이고 있다. <마을, 6천원>

▲지금 이 자리에서의 깨달음 (이근후 지음)=이근후 교수의 '신은 우리들의 입맞춤에도...' 펴내

▲지혜로운 바람이... (이근후 지음)=이근후 교수의 '신은 우리들의 입맞춤에도...' 펴내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이근후 지음)=이근후 교수의 '신은 우리들의 입맞춤에도...' 펴내

▲이제야... (이근후 지음)=이근후 교수의 '신은 우리들의 입맞춤에도...' 펴내

▲이제야... (이근후 지음)=이근후 교수의 '신은 우리들의 입맞춤에도...' 펴내

▲이제야... (이근후 지음)=이근후 교수의 '신은 우리들의 입맞춤에도...' 펴내

▲이제야... (이근후 지음)=이근후 교수의 '신은 우리들의 입맞춤에도...' 펴내

▲이제야... (이근후 지음)=이근후 교수의 '신은 우리들의 입맞춤에도...' 펴내

▲이제야... (이근후 지음)=이근후 교수의 '신은 우리들의 입맞춤에도...' 펴내

▲이제야... (이근후 지음)=이근후 교수의 '신은 우리들의 입맞춤에도...' 펴내

▲이제야... (이근후 지음)=이근후 교수의 '신은 우리들의 입맞춤에도...' 펴내

▲이제야... (이근후 지음)=이근후 교수의 '신은 우리들의 입맞춤에도...' 펴내

▲이제야... (이근후 지음)=이근후 교수의 '신은 우리들의 입맞춤에도...' 펴내

▲이제야... (이근후 지음)=이근후 교수의 '신은 우리들의 입맞춤에도...' 펴내

▲이제야... (이근후 지음)=이근후 교수의 '신은 우리들의 입맞춤에도...' 펴내

▲이제야... (이근후 지음)=이근후 교수의 '신은 우리들의 입맞춤에도...' 펴내

▲이제야... (이근후 지음)=이근후 교수의 '신은 우리들의 입맞춤에도...' 펴내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태아 영가 천도 "사경" 참회 법회 봉행

귀의 불·법·승
생명을 빼앗긴 태아 영가는 천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구원을 떠도는 태아 영가의 천도를 위한 사경 참회 법회로 추복(追福)하여 생과 사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어 왕생극락을 축원하여 주는 것이 부모된 피할 수 없는 인연 도리입니다.
낙태한 부모는 태아 영가를 천도(사경 참회 기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태아 영가의 외로운 혼을 위하여 법연·사경참회 기도 법회에 동참하여 그 선업으로 태아 영가와 그 부모가 이고득락·구경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불기 2539년 9월 11일 10시·25일 10시
회향 10월 9일 9시 (T 993-3744)

■ 장소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31-8

태아 영가 천도 도량 금강사 병법사문 강자우

모시는 인연만으로도 큰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금강경 10폭 병풍

불자라면 누구나 원하시는 원력병풍 - 금강경
표구비만으로 드리는 추석특별보급으로 가격부담없이 가까이 모실 수 있습니다.

추석 특별보급 50점

불자라면 누구나 원하시는 원력병풍 - 금강경
표구비만으로 드리는 추석특별보급으로 가격부담없이 가까이 모실 수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490,000 (현금 및 은행신용카드)

■ 전면: 원력 높으신 스님께서 사경하신 금강경을 숲화로 조성하였습니다.
■ 후면: 林泉거사 진경 불성 연화도

■ 규격: ● 높이: 5자 8치 (약 175.8cm)
● 폭: 14자 (약 424.3cm)
● 재질: 고급삼기목/양면 고급비단/소모사 특수지

구입 문의 기림 제작 三田佛事 (02) 732-6095 732-6096
*참조 후면에 팔상(석가세존 일대기)를 원하시면 별도로 꾸며드립니다.
*플로터서비스전화 080-023-1101(요금 수신자 부담)